

제 20 권 구약 속의 예수님

1.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

출처: *Expository Thoughts on Luke*, Vol. 2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79), 500-501;

저자: 찰스 라일(J. C. Ryle, 1816-1900): 영국 성공회 주교. 영국 잉글랜드 체셔 카운티 매클스필드 출생.

역자: 김주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이 구절에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가득한지 주목하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리스도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구약 희생 제사의 실체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사사와 구원자로 예표된 사람들의 참된 구원자이자 왕이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이고, 선지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고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실로이고, 참된 희생양이고, 참된 늦 뱀이고, 매일 드리는 제물이 가리키는 어린양이며, 모든 아론의 후손이 상징하는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것들(혹은 유사한 것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세히 설명한 말씀에 다 포함된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자.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는 한, 영적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잃으면 성경은 온통 암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 뱀의 운명에 관한 복음

출처: 1890년 9월 21일 주일 아침, 영국 뉴잉턴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에서 전한 설교

저자: 찰스 스펠전 (1834-1892): 영국의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김선형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나는 여러분이 뱀에 관한 이야기를 우화로 여기지 않길 기도한다. 진짜 낙원이 존재했듯 그곳에 진짜 뱀이 있었다. 우리 인류의 머리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정말로 죄를 짓고 인류는 정말로 타락했었다. 이것을 믿으라.

“옛 뱀이요 마귀인”(계 20:2)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여자에게 영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다. 순전한 영혼은 인간의 외부기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에 눈으로 볼 수 없다. 비물질인 영은 보이지 않을 테니 보이기 위해서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야 한다. 사탄이 살아 있는 육체 속에 들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탄과 그의 ‘군대’ 귀신들은 무저갱에 던져지기보다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던 사탄은 그 당시 뱀이 가장 교묘한 짐승 중 하나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뱀에게 들어갔고 그 속에서 그 뱀을 자세히 알아가며 조종했다. 그는 뱀이 말하듯 뱀을 통해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뱀이었지만 옛뱀이라 알려진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갔고 모든 교활함으로 실제 뱀을 조종하였다. 인류를 죄악으로 이끌어 파멸시킴으로 하나님에게 이기고자 했던 그 타락한 천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파충류의 몸을 취하였다.

주께서 그 뱀을 다루실 때 그 뱀의 죄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 점을 주목하라.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대적자의 죄가 자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길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사탄 및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은혜 언약을 맺을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 주님은 그 뱀에게 형벌을 선포하셨고 그 형벌은 그에게는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선언이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에게 그 선언은 어둡고 절망에 빠진 영혼을 향한 빛이었을 것이다. 그 뱀의 파멸에 대한 이 복음은 오랫동안 믿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별이었다. 사탄은 그들의 원수였으며 그들에게 악한 짓을 저질러왔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그와 싸우고자 그를 자신의 전쟁터로 불러내셨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를 쟁취할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때, 인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선포한 부단히 이어질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탄은 쉬운 정복을 기대했고 분명히 승리를 얻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희생자가 그의 대적자가 되고, 결국 그의 정복자가

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사탄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안식을 구하여도 전혀 얻지 못한다(마 12:43). 그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그녀를 친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지으신 그 매력적인 하와를 그 위대한 왕에게 복종하지 않도록 유혹하다니! 그녀의 남편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도구로 사용하다니! 사탄과 하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뱀이 조심스럽게 힌트를 준 것에 대해 많은 감사를 느끼며 선악의 열매를 따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열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통탄할 정도로 그녀가 속았던가! 뱀도 유리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 둘의 연맹은 깨졌고 사기꾼과 피해자는 양측이 되었다. 하나님은 가장 엄숙한 선포를 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더 이상의 평화가 없을 것을 아셨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때때로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 아첨하고 교회는 세상에 순응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불경한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는 반복적으로 평화를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유혹하여 복음을 시대에 맞게 희석시키려 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화시키려 한다. 또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 틈을 메워라!”라고 외친다. “오래된 하수구처럼 덮어버리고,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라!”라고 말한다. 그는 잠언에 나오는 죄인처럼 말한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잠언 1:14).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비록 모든 설교단이 함락되고 택함 받은 자들마저 속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증인이 없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어디선가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선택된 자들을 찾아 거룩한 전쟁을 이어가실 것이다. 여호와와 왕좌에 손을 얹고, 대대로 악과 싸울 것을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이 성막 문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눈을 감아 주고 있을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맹세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라. 진리의 등불이 꺼지는 것일까? 주를 경배하는 것이 완전히 혐오스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 절대 그렇지 않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 의해 자라나 그 성막으로 가서 주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아이를 용사로 삼아주셨다.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 아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삼상 3:4)라고 대답했다. 주 앞에 선 사무엘은 그의 귀에 울렸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경외를 받게 되었다. 여호와의 궤가 사라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옛뱀이 그의 독을 온 만물에 퍼뜨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보좌를 항상 대적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대감을 지속시키신다. 그분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된 사실을 보라! 여기에 복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은 여자의 한 후손이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사탄과 악에 대항하는 후손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남은 후손으로서 악의 세력과 끊임없는 전투를

별이다. 우리는 그 후손에 속하였는가? 그 후손 안에는 모든 거짓과 악한 것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이 절대적으로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 주셨고 앞으로도 살피주실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만약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이에 항의하는 개혁자가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형태의 악이 남아 있다면, 위로 부터 그것과 싸우려는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 후손은 육체의 피나 뜻으로 나지 않고 여자의 진정한 후손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후손은 마지막 원수를 멸할 때까지 만군의 주를 위해 용맹하게 싸울 것이다(고전 15:26).

친구여, 이 아침에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지 확인하라.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위에서 태어났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오직 영으로 난 자만이 여자의 진정한 후손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옛뱀의 성취가 제한적인 것을 보게 된다. 그는 모든 책략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일까?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뱀의 행동의 유형이다. 사탄은 “샬길의 독사로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참조, 창 49:17). 그가 감히 공개적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는 아마도 뒤에서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그는 풀밭에 있는 뱀처럼 나그네의 발뒤꿈치를 물어뜯는다. 사탄은 지난 6천년 동안 교활함과 미움을 갖고 희생자의 발뒤꿈치를 상하여왔다.

상한 발뒤꿈치는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 우리 주의 몸에 있는 큰 상처를 보라. 그는 배신당하고, 구속당하고, 고발당하고, 구타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 뱀음을 당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십자가에서 갈증, 열병을 겪었고 어둠 가운데 버림당했다. 그들은 그의 손과 발을 못 박고 마침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여자의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이는 슬픈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과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히 12:2).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포함한 여자의 그 후손을 보라! 사탄은 그의 발뒤꿈치를 최대한도로 손상시켰다. 그는 오랜 박해를 통해 교회의 발뒤꿈치를 공격해 왔다. 사탄은 많은 성도들을 옥에 던져 넣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을 고문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영혼은 그의 손이 닿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유혹 받고 시험받고 쓰러질지라도 당신의 머리인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어서 오히려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시커먼 물이 온몸을 덮을지라도 우리의 머리가 파도 위에 있으니 몸은 안전하다. 뱀에게 물린 상처는 발뒤꿈치에 있을 뿐 더 이상 몸에 퍼지지 않는다. 교회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환란의 경한 것’에 불과하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고후 4:17)과 비교할 수 없다. 원수가 당신의 발뒤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주께 감사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진리의 원대한 뜻이 펼쳐지는데 있어서 사탄의 교활함에 의해 한동안 안타깝게 방해를 받더라도 그 뜻이 막힐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발뒤꿈치 때문에 고통스럽게 전진해야 하지만 실패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절뚝거리면서도 그 먹이를 잡아챈다.

애매하게 언급되던 교리는 더 충분한 연구와 함께 더 주의 깊게 알려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한 발꿈치라도 제대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잠시 동안 먹구름에 가려졌을지라도, 더 큰 영광과 함께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사탄아, 네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별로 대단하지 못하다! 네가 가장 쉰 때 한 것이 고작 발꿈치를 무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없다. 너는 그 발꿈치에 독을 넣지도 못하고 상처만 입힐 뿐이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절뚝거리며 물린 곳 때문에 고통을 느껴야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여 반드시 광야에서 빠져나온다. 그는 자신의 발꿈치의 상처를 잊은 채, 영광스러운 그의 머리의 승리를 기뻐한다.

우리는 사탄의 승리가 제한적인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의 마지막 운명을 살펴보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커다란 충돌의 끝이 있다. 세상에서 악한 힘을 이끄는 사탄은 그의 모든 교활함과 힘을 다해 싸우려고 한다. 그는 그를 상대하는 용사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나 여자의 그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취되었다. 그는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했고, 죄를 없앴으며, 나아가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 위대한 대체 선수는 모든 믿는 영혼을 위해 분노의 잔을 끝까지 마셨다. 그는 마치 삼손이 가자에서 성문짜과 문설주 그리고 문빋장을 빼어 가지고 가듯 죽음의 문의 경첩을 뺐다(삿 16:3). 그가 하늘 문을 열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실 때 정말로 용의 머리는 부수어졌다. 이제 사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형제를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지 않았는가? 그는 여전히 원함과 악의를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그를 짓밟으셨다. 그렇다, ‘멀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사 53:3),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그 인자, 피 흘리는 어깨와 손발이 뚫린 인자, 동정녀에게서 난 여자의 그 후손이 대적의 권세를 꺾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어둠의 왕자를 하늘에서 쫓아냈다! 그는 직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가 뱀의 머리를 부셨다!

이는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형제들이여, 성령이 우리를 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날에,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사탄은 늘 명령하였고 우리는 복종하였기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그 지배는 끝이 났고, 다곤은 주의 법궤 앞에 쓰러졌다. 나는 뱀이 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본다. 턱을 벌린 큰 비단뱀이 나를 당장 삼켜버릴 것 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뱀아, 내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했다. 나도 여자의 그 후손에 속하게 되었다. 뱀은 택함 받은 후손에게 맞서 일어날 수 없다. 그가 머리가 깨진 채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이 그에 대해 승리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 할렐루야!

악한 자의 머리의 상처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다. 만일 그의 꼬리나 목이 상하였다면 그는 다

시 회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의 세계를 멸하시고 그 권세를 없애셨다. 악의 군림은 멈추어졌고 은혜는 의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며 그곳은 의로 가득할 것이다. 여자의 그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오셔서 그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온 땅을 영광스럽게 다스릴 것이다. 그때 그는 진리와 의로 인해 변창할 것이고 그의 오른손은 그의 백성들을 높일 것이다. 그의 발은 그들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나와 당신이 그의 재림 때에 여자의 그 후손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복한 군중 속에 있기를 바란다! 그날에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기를 바란다!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해 낙원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타락의 모든 피해가 무효화될 것이다. 또한 그가 제거하지 않은 것들은 회복될 것이다.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당신은 여자의 그 후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은 그를 믿고 대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사탄의 머리를 산산이 부수고 싶은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하며 거룩해지길 원하는가?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 그렇다면 당신은 승리하는 쪽에 있는 것이다. 승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 옛뱀인 마귀에게 선언된 놀라운 문장에서 많은 복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고작 걸만 훑어보았을 뿐이다. 온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아멘.

~~~~~

육신이 된 말씀은 쓰인 말씀의 열쇠다. 구약성경에서 발견된 것에 의미와 복됨을 부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그의 사역이다. - 아더 핑크

### 3. 그리스도와 이삭

출처: *Selected Sermons of George Whitefield*

저자: 조지 윗필드(Gorge Whitefield, 1714-1770): 영국 글로스터셔주 글로스터에서 태어나 대각성 기간 동안 위대한 전도사가 된 성공회 목사.

역자: 조상철

“여호와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나는 족장 아브라함이 구약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벼"(약2:23)이라 불렸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불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갈3:9)라고 할 정도로 칭송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에게 여러 차례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그의 외아들을 바쳐야 하는 정말 가혹한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험에 대해 묵상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실제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창 22:2)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당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한다. 아내나 아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지금 데려와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첫 새끼를 잡거나, 양 떼 중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네 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어야 한다(창 22:2). 짐승 대신에 바쳐야 할 것이 꼭 아들이어야 한다면, 이삭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지 않은가? 아니다. 번제물로 바칠 제물은 반드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의 독자 이삭(번역하면 웃음)이어야 한다. 그 번제물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어, 그가 온 맘으로 기뻐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이어야 한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지체 없이, 심지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으로 끌려가서 그의 아버지에 의해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

이윽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창 22:9).

여기서 잠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놓힌 장면을 떠올려보자. 나는 거룩한 천사들이 제단 주위를 돌며 인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외치며 노래했다고 확신한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부모들은 알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세워진 제단에 나무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위에 묶여 있는 사랑하는 이삭과 그 옆에 서서 울고 있는 늙은 아비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아브라함이 왜 울지 않았겠는가!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지 않으셨던가? 나는 족장 아브라함의 뺨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있다. 그가 벽차 오르는 감정으로 외치는 것을 본다. “잘 가거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내게 주셨고, 이제 너를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잘 가거라. 온 맘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아.” 동시에 나는 이삭이 그의 하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양전히 맡기고 지존자께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어루만져 주사 담대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우리는 어렵듯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다시 듣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 주님! 그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창22:10).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면서 그의 고개를 다른 곳을 향해 돌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 번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뻗었던 그의 팔을 멈춰버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국 칼을 쥔 그의 팔을 뺀어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사람의 극도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기뻐다! 보라! 이제 칼이 이삭의 목을 꿰뚫으려는 찰나에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여호와와 사자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두 번이나 불러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하던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창 22:11)라고 대답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맘으로 산 아래 있는 그들의 종들에게 돌아갔겠는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사라에게 전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는 풍성하고 자유롭고 거룩하고 주권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천국에서 얼마나 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겠는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 중에서 구별되어 영원히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불릴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이면에 숨겨진 신비를 보도록 하자. 당신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다면, 이 비밀로 인해 당신은 사랑의 눈물을 한 없이 흘리게 될 것이다. 이쯤에서 당신이 내 말을 멈추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바란다. 맞다. 바로 그것이

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아마도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 상태를 볼 때, 우리는 모두 타락한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며 감탄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겠는가? “오, 하나님 이제야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아들 이삭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갈4:4) 우리를 대신해 그를 저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결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오, 신자들이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눕혀 놓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공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묶어서 제물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아브라함이 칼을 쥔 손을 뺀 장면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어떻게 죽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 자신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때 사용될 나무를 직접 어깨에 매고 가는 이삭이 보이는가? 그 모습은 우리를 갈보리산으로 이끌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매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당신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길을 가기를 순종하는 이삭을 보며 감탄하는가?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기꺼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9). 오, 하나님이여! 약속된 그 후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단과 나무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이삭이 그 제단에 묶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가? 이삭처럼 그저 묶인 것이 아닌, 저주받은 나무 위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가 가시관을 쓰신 채 매달려 계신 것을 바라보라. 그 가시관이 얼마나 그를 찌르는지를 바라보라! 그의 신성한 관자놀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린다!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음 소리를 들어보라! 그가 고개를 떨구시고 마침내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라!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이삭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삭을 대신해서는 숫양이 제물로 바쳐졌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이는 없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어린 양을 영원 전부터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다. 그는 정하신 때에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자, 당신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당신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

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에게 의해 찢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한다. 마치 어떤 여인이 첫 아이의 죽음을 보며 애통하듯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의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을 죽인 자들이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저주받은 나무로 오르게 한 그 죄악들을 생각하며 통곡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였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으며,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그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의 것이옵니다.

#### 4.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출처: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the Messiah,” in *Jonathan Edwards Documents* (New Haven, CT: The Jonathan Edwards Center at Yale University, 2016).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미국 회중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이다. 미국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에서 태어났다.

역자: 스테반 황

구약의 오랜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의 고난은 극도로 심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 같이 닳았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시 102:3-6, 9-10).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는도다”(시 22:14-15, 17).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게 하나이다”(시 69:1-3, 20).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 그가 채찍에 맞음은 ...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도다”(사 53:4-7, 10).

구약의 오랜 예언들에 따르면, 메시아가 받는 외부의 못된 대우, 굴욕, 불명예, 경멸은 극도로 심하고 심지어 한없이 클 것이며, 그의 원수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메시아를 크게 조롱하고 업신여길 것이다. “나는 별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시 22:6-7).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 내가 굶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 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이다”(시 69:7, 11-12, 19-20).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나이다”(시 102:6, 8).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사 52:14).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예수께서 은 삼십에 팔리고 그 돈은 토기장이에게 주어진 사실은 놀랍게도 스가랴 11장과 일치한다.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슌 11:11, 13).

메시아는 잔혹한 인간들에게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

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시 22:12-13, 16).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시 69:4, 14, 19, 21-22, 26).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 그가 곤욕을 당하여”(사 53:3, 7). 이 광경은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미 5:1) 모습이다.

시편 22장 11절에 따르면, “호산나”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찬송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열 마 후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도망친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시 22:11).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시 69:8, 20).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시 102:7). 시편 69편 및 시편 102편의 두 예언은 예수께서 혼자 깨어 경성하며 있을 때 이루어졌는데 주의 제자들은 한 시간 동안이라도 주를 위로하기 위해 그와 함께 깨어있지를 못하였고, 또한 주께서 큰 번민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하셨을 때도 그들은 깨어 주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주님은 제자들의 위로를 바라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 26:38)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주를 위로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주를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더욱 비난하고 조롱하며 고통을 가했다. 이 사실은 시편 22편 12-13, 16절에 예언되어 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쌌도다”(시 22:12-13, 16). 그리고 그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장로들, 천하의 모든 민족들, 헤롯과 그의 심복들, 이교도들, 로마인들, 병사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이방 나라들의 종들에 의해 둘러싸였는데, 이는 시편 118장 10-12절의 예언과 같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도다”(시 118:10-12).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얼굴을 손상시켜 일그러지게 만드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피 묻은 땀으로 손상되었고 그 다음은 그의 원수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그 다음 채찍으로 때렸고 그 후 몽둥이로 머리를 쳤으며 그 다음 가시 면류관을 씌어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는 이사야 52장 14절의 예언과 일치한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도다.”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시 69:7).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침 뱉음을 당한 것은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과 일치한다.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미 5:1).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이사야 50장 6

절과 일치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메시야는 죽임을 당하되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며 그의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의해 죽어야 하고, 그가 중후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예언되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그 목자를 치라”(속 13:7).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단 9:26).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시 22:15-16).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시 102:3),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시 102:11, 23-24). 시편 102편의 위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는 장년이 되기 전, 중년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시편 102편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는 예언은 그의 죽음이 그의 원수들의 악함과 잔인함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다.

“그가 ...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 여호와께서 ...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사 53:7-10, 12).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시 86:14).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내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일단 그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예수님은 그의 형제인 유대인들의 잔악함으로 죽으셨다. 그가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핍박을 받은 것은 그에 대한 그들의 적의로 인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 때문이요, 특히 성전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성 때문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멸 때문인데 이에 대한 예언은 시편 69편 7-9절에 담겨 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시 69:7-9).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들과 교사들은 ...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심각하게 책망하자 엄청나게 분노하였다.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은 그들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예배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타난 그들의 교만한 행위는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나타났다. “랍비, 랍비”라는 칭호를 듣기 원하던 그들은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께 불명예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집을 막아서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았다. 하나님의 집에서 길게 기도하면서도 탐욕스러운 행위와 악한 갈취로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마 23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식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이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심히

격분하였고 그들의 손이 그의 피로 물들 때까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이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죽게 하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시 69:9, 20).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가 받은 극단적인 치욕과 비방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시 22, 102; 사 53).

메시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고 ...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도다”(사 53:8).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시 69:12). 메시아는 악인처럼 고난을 당할 것과 악인처럼 사형 당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고난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고 ...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나라”(사 53:8-9, 12). 그의 원수들은 그의 손과 발을 못 박아 그를 죽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시 22:15-16).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가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며 그를 조롱하며 머리를 저었다. 이는 시편 22편 7-8절의 예언과 정확하게 같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견지실 걸 하나이다”(시 22:7-8). 그들이 예수께서 목말라 하실 때 쓸개와 식초를 준 사건은 시편 69편 21절과 일치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시 69:21). 그들이 예수님의 걸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 뽑는 장면은 시편 22편 18절과 동일하다. “내 걸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시 22:18). 이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의 속옷과 관련한 부분이다. 즉, 주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라서 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은 그것을 찢어 나눌 수 없기에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시편 22장 14절의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가 놀랍도록 완벽하게 성취된 사실을 발견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는 번민으로 그의 힘을 다 쏟았고 그의 힘줄은 크게 풀렸다. 그는 그때까지 끝없는 고통 아래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였었다. 그리고 힘이 다하여 쓰러질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그의 온 몸이 매달려 3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의 나머지 모든 힘과 생명은 소진되었고 뼈들을 붙들고 있는 근육들과 힘줄은 점점 더 풀어졌다. 이제 관절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뼈들도 하나씩 어그러졌다. 메시아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죽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었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시 22:14-15).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시 69:20).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시 102:4).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사 53:12). 실제로 시편 22편과 69편, 이사야 53편의 일반 분위기가 이 사실을 보여준다. 참으로 시편 22편, 69편, 이사야 53편의 분위기는 주의 정신적인 고통을 알려준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때에 그를 버리고 전혀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예언과 일치한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이다”(시 22:1-2).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으로서 그가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라고 예언되어 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시 69:26).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사 53:10).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그 목자를 치라”(슥 13:7).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겔 17:22).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이다”(시 22:15).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시 102:10-11).

그리스도가 마지막 고통을 당하면서도 대단히 온유하셨고, 그의 원수들의 온갖 부당한 고발과 비난과 가혹한 억압 속에서도 침묵하고 거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신 것은 예언과 일치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이다”(시 22:15-16). 그를 둘러싼 자들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잔인하여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신다고 해도 헛될 뿐이었다.

메시아가 자발적으로 고난과 죽음에 임한 사실도 예언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사 53:12).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예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는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독하게 사악한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사실은 자기 앞에 놓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보여준 완전하고 철저한 복종과 인내와 순종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가장 끔찍한 잔인함과 피에 끓주린 악의와 경멸의 극치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셨다.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바치신 그의 영혼의 영광스러운 거룩함, 은혜, 그리고 무한한 공적은 완벽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죄인들에 대한 완벽한 사랑 때문에 가장 악하고 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고난과 함께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셨다. 이 사실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을 놀랍도록 성취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메시아의 기도는 그가 마지막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 문맥과 그 구절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에 언급된 중보 기도는 그의 마지막 고통의 공로적인 배경과 맞물린다. 즉, 그의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위대하고

공로적인 덕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보상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비록 메시야가 악한 자와 범죄자로 여겨지며 큰 멸시 가운데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야의 순수함과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죽음의 상황을 부자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사 53:9). 이 예언은 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한 감동을 받고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후 그의 새 무덤에 그 시체를 정성스럽게 장사한 사건으로 뚜렷하게 성취되었다. 이 부자는 예수께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것과 그럼에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귀하게 여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재판관에게 형벌을 선고 받을 그 어떤 거짓이나 잘못이 없었다.

메시야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킴으로써 그 후 다른 모든 희생 제사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단 9:24, 27). 24절에서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영광스럽고 멋진 일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표현이다. “죄악이 용서되며”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율법에서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의 의미와 같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메시야가 죄와 잘못을 끝내며 태우며 없애기 위해 죄를 속죄하는 희생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화해의 일을 완수함으로써 더 이상 화해 및 죄를 속죄할 일들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으로 그 이후의 죄에 대한 희생이 메시야에 의해 중지되고 중단되는 것같이 보인다. 27절에서, 70번째 주의 마지막 절반인 때에 동물 제사들은 중단될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메시야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예언된 것을 알 수 있다. 죄를 속하기 위한 다른 모든 희생 제사들과 의무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동물을 통한 속죄 제사는 끝이 났다.

~~~~~

구약성서의 예표는 복음이 신약 시대에 새롭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부활하신 구세주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의 의미를 알릴 때, 성경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고 말한다. 사도들의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도 드러난 것들이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함께 복음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약과 관련된 예표들을 상고해보는 것은 신구약 모두가 신성한 저자를 증명하기 때문에, 신앙을 확증하는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예표들은 거룩한 감동을 자아

난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진만 보아도 즐겁다. 예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표를 통해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 아더 핑크

5.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처: *Studies in the Book of Psalms* (Philadelphia: Edinburgh: J. B. Lippincott Company; A & C Black, 1872), 16-18.

저자: 윌리엄 플러머(William S. Plumer, 1802-1880: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저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그린스버그 출생.

역자: 박기철

시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시편과 그리스도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메시아와 관련된 시편은 얼마나 될까? 시편의 어떤 것들을 일차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적용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이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 왕들은 구속주의 모형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논쟁자들에게 경솔함과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상상은 누구도 의도치 않았던 엉뚱한 비유를 생각해 낼지도 모른다.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확연히 눈에 띄는 모형마저 거부할지도 모른다. 구약에 있는 어떤 것도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약 예언이 신약에서 인용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구약의 경륜 전체가 모형으로 가득 찼다고 가르친다(히 10: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한편, 상상의 날개를 펴는 해석자는 무엇이든 왜곡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진지해야 한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이 채택한 해석의 규칙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모든 해석은 입증에 필요하다.

흔히들 코케이우스(Johann Cocceius, 1603-1669: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는 일반적인 해석을 극단으로 이끌어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구약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로 가득 찼다고 가르쳤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사도행전 3장 24절을 참조하라. 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들에 의해 뒷받침을 받는다. 만약 코케이우스가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영감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천 년 전에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코케이우스의 견해 중 일부는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시편에 대한 그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나는 그가 그의 어떤 반대자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건전한 안내자라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사람은 세상이 크게 타락하던 시기에 글을 썼는데, 사람들을 성경의 단순한 진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의 시도는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비난을 받았다. 그는 사무엘 호슬리(Samuel Horsley)의 시편 성경 해석을 취하였다. 호슬리의 말을 들어보자. “시편에는 경건한 독자가 구주를 찾을 목적으로 읽으면 그를 찾지 못할 페이지는 하나도 없다.”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편에는 그리스도와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시편은 신구약 성경의 개요 또는 요약이라고 불린다 ...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사를 폐하려 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모세의 계보는 사라져 없어졌다. 그러나 다윗의 계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영원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주셨다.”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시편 해석의 중요한 열쇠는 사무엘하 7장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그 씨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에드워드 찬들러(Edward Chandler) 주교는 매우 올바르게 말하길,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 다윗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윗의 시편을 매일 찬송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윗 또한 그들을 찬양대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은 그들에게 시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후원하였다. 시편이 메시아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죽어 유대인들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윗의 인생사를 하루에 두 번씩 찬양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기도로 기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존 길(John Gil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편의 주제는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다. 많은 시편들은 그리스도의 위격, 직분, 은혜 및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관련되기에 복음의 경륜에 적합하다.” 조셉 애디슨 알렉산더(Joseph Addison Alexander) 박사의 말이다. “오랫동안 예언 의식 아래에 가려져 끊어졌던 메시아 약속은 새로운 연결고리가 추가됨으로 갱신되었는데, 그 고리는 영원한 왕위를 잇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사무엘하 7장).”

모든 시편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스코트(Scott)는 말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경건한 이들의 마음은 각각의 시편들이 곧바로 그리스도의 위격과 인격과 직분에 있어,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킴을 허용할 것이다. 즉, 시편은 믿는 자들의 생각을 모든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로버트 레이턴(Robert Leighton)은 말한다. “많은 시편들과 구약의 다른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적용하기 위해 사도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 모리슨(John Morison)의 의견에 찬동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 인용과 해석을 따르는 데는 전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말에 덧붙여 일관되게 말한다. “많은 시편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피에르 알릭스(Pierre Allix) 박사의 말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다. “비록 50여개의 시편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확정되었지만 그들이 모든 시편을 인용할 수 있음에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주의 백성에게 각 시편의 구성과 표현에 따른 주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은 멜란히톤(Philp Melanchthon)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즉, 우리는 항상 성경의 문법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의 의견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는 성경 해석의 가장 확실한 원리를 고수한다. 즉, 문자에 충실한 해석은 서게 되지만, 문자에서 멀어질수록 나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성경의 일차적인 의미, 즉 문자적 의미를 인정하자.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 또는 이차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윗에 대해 언급된 것은 문자적으로 그에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는 일차적인 의미를 얻는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일차적으로 말한 것은 이차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인물 모형 교리를 예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모형을 대할 때, 첫 번째 일은 그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주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캄페기우스 비트링가(Campegius Vitringa)는 종종 영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해석들을 올바르게 비판했다. “거의 모든 교회 시대에 교육받지도 못하고 판단력도 약한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 성경해석을 해왔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을 칭찬했다. 하지만 이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이 없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상상이었다. 그들은 문맥을 분별하지 않고 단어의 진실함이나 유비의 근거 없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아무렇게나 부적절한 구절들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신비로운 해석들을 뒷받침하였다. 나는 거의 쓸모가 없는 이런 성경 해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지 싶다. 이런 성경 해석은 훈련받지 못한 무감각한 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큰 해를 끼치게 하고 불경스런 모독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된다.” 사실 건전한 일반 상식보다 더 좋은 성경 해석자는 없다. 어리석은 공상가들은 가장 좋은 해석 원리를 오용할 것이다. 정상적인 이치가 부족한 그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마르틴 부써(Martin Bucer)는 말한다. “헛소리만 할 뿐, 그리스도의 교훈의 위엄을 매우 손상시키는 알레고리 및 기타 경박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만을 단순하고 진지하게 따르다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참회의 시들을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즉, 그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할 죄가 없으시다. 그리스도 자신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무해하시며, 정결하시며, 죄인들과는 구별되시며, 완전히 무죄하신 분으로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다. 만약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죄가 그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는 없었을 것이다. 진실로 그에게 죄가 전가된 것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또한 우리는 죄성을 억제하기 위해 간청하는 시편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없다. 그에게는 억제할 죄성이 없으시다. 그럼에도 힐라리오(Hilary of Poitiers)의 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시편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6.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출처: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translated by Christopher Fetherstone and edited by Henry Beveridge

저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프랑스 종교개혁가. 프랑스 피카르디 누아용 출생.

역자: 김주현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행 13:33).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당시 상황에 아주 적절하고 알맞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맞설 수 없을 만큼 큰 권력을 소유한 강력한 적에게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통치자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대적한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윗은 진정한 메시아의 상징이므로, 다윗의 성품 중에는 메시아에게만 완벽하고 온전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이 구절이 순전히 다윗의 왕국에 관해 감사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예언’이라는 점은 본문 자체가 충분히 증명한다. 이는 다윗이 그의 생전에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영광의 백분의 일도 맛보지 못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 먼저 이 높은 차원의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을 살펴보자.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다(시 82:6).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다른 모든 왕보다 더 좋아하고 특별하게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영광스러운 호칭은 주로 다른 왕들보다는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는 다윗의 인격이 그토록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천사보다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귀하게 세움 받았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평범한 사람이나 일반 대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공표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시점에 다윗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다윗이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그의 낳음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능력으로 끝도 없는 음모를 무너뜨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로 그 나라의 왕위에 앉은 때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마치 세상이 정복된 것처럼 그의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에게 항복함으로 그가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인 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증언하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했다(요 5:36).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을’ 때 그에게 특정한 표식을 새겨서 그가 자신

의 참되고 살아있는 형상이자 아들임을 드러내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만세 전에 영원한 성부에게서 난 지혜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잠 8:22-36). 하지만 이 영원 발생 교리(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는 비밀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다윗은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것은 매우 잘 선택된 상징인데, 그리스도의 신성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는 사실로 선포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성령께서 친히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해석하실 때, 우리는 그 해석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성의 핵심 증거이며, 이로써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정확히 보여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야말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살렸다.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주로 나타나셨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에 걸맞은 위엄이 가득했다.

~~~~~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다. 시편 21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밋밋하고 빈약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윌리엄 플러머

## 7. 택함 받은 종 그리스도

출처: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저자: 매튜 헨리(Matthew Henry, 1662-1714): 장로교 설교자, 작가 그리고 주석자. 영국 웨일즈 플린셔 브로드 오크 출생.

역자: 김혜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1-4).

복음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마 12:17-21),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보고 관찰하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한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 무엇을 보고 관찰해야 하는가?

1) 그를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그와의 관계, 그에게 두었던 신뢰와 그로 인한 기쁨을 관찰하라. 이로 인해 그는 영화롭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나게 되었다(1절).

(1) 하나님은 그를 자신을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를 소유하신다. “그는 ‘나의 종’이다.” 비록 아들이셨으나 종재자로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셨다.

(2)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명되었다. ‘무한한 지혜’는 선택하셨고 그 사실을 공언하셨다.

(3) 그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자였다. 어떤 역자들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내가 신뢰하는 나의 종”으로 읽는다. 아버지는 그가 그 일을 잘 해낼 것이고 확신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크게 신뢰하였지만, 사실 아버지는 그가 능력과 신실함으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것을 아셨다.

(4)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아버지는 그를 붙드시며 지탱하여 주셨다. 아버지는 그의 편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5)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 전부터 그에게 있었고, 그는 “아버지 곁에서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참조, 잠 8:30). 아버지는 그의 일에 특별한 만족감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심히 기쁘다고 선언하셨다(마 3:17, 17:5). 하나님은 그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의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주님과 연합하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로 인해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2)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자격: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실 것이다(사 61:1). 하나님의 영은 단지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처럼 찾아오셔서 “어느 정도”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요 3:34) 그에게 “강림하셨다”(사 11:21). 하나님이 그분의 종으로 고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실 것이니,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그들 위에 두실 것이다.

3) 그가 담당하신 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즉, 무한한 지혜와 거룩과 공평함으로 이 세상에 종교를 세워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정의로 다스림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주의 정의를 가지고 오셨는데(시 147:20), 이는 그가 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셨기 때문이다(눅 2:32).

#### 4) 그가 이 일을 해나가시며 지니신 온화함과 부드러움(2-3절).

(1) 그는 그 일을 조용히 소음 없이 실행하실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 하리니”(마 12:19). 위대한 군주가 지나가고 있을 때나 공중에 출입할 때와 같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막 13:21)라고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그를 드높이는 나팔 소리가 없을 것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요란한 수행원들도 없을 것이다. 그는 직면하는 반대에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적대를 인내로 견디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적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무기는 세속적이지 않으며 외적으로 장엄하거나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2) 엄하지 않고 부드럽게 실행하실 것이다. 그는 악한 자들을 으스러뜨리시지만 상한 갈대처럼 되면 인내하실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즉시 부수지는 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꺼져가는 연기를 내는 심지처럼 매우 불쾌하나(사 65:5) 그는 예루살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인내하실 것이다. 그는 악한 자들, 생명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자들, 약간의 열기를 가진 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실 것이다. 갈대만큼 약한 자들, 상한 갈대처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들, 꺼져가는 연기를 내는 자들, 새로 불이 붙었지만 다시 꺼지는 심지 같은 자들을 그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들을 부수어 꺾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은혜로운 그는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실 것이다. 사실 성경의 표현은 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더러 그 갈대를 견고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궁궐의 백향목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는 꺼져가는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바람을 불어 불이 붙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연약하나 참된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매우 온유하시며,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관용하신다.

4)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용기와 꾸준함으로 인내함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려움과 많은 반대를 만나시며, 또한 세상이 얼마나 배은망덕할지 예견하시나, 그는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그는 그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처럼 그는 그가 맡으신 일을 성취하신다.

(1) 그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 많은 기적과 그리고 부활로 마침내 그는 그의 교훈이 진리임을 입증하시고 그가 세우려 오신 그 거룩한 종교의 신성한 기원과 권위를 충분히 입증하

실 것이다.

(2) 그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교회를 세우신다. 그는 세상을 개혁하시고, 그의 복음과 은혜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롭고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3) 이방인의 섬들은 "그의 교훈을 앙망하고" 그의 복음을 기다린다. 즉,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복음을 기다렸던 것 마냥 복음을 환영한다. 그들은 그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의 발 앞에 앉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 8. 기름 부음 받은 전도자 그리스도

출처: *Horae Homileticae*: Isaiah, Vol. 8 (London: Holdsworth & Ball, 1832), 559-563.

저자: 찰스 시므온(Charles Simeon, 1759-1836): 영국 목사. 영국의 복음 사상에 오랜 영향을 끼쳤다. 영국 버르크셔 리딩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이 말씀은 그 안에 담긴 축복된 진실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며 이에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로 이 말씀을 삼았다. 주께서 제시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었다(눅 4:17-22).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면서”(행 8:35)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감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을 누리길 싶어 하는 깊고 변함없는 열망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이사가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직분으로 부름 받으심:**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그분 위에 임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구별되었다. 제사장들과 왕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각자의 직분으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왕상 19:16).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직분에 있어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직분자들보다 무한히 능가하신 분으로서 기름 부음이 예표하던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별되었다. “주 여호와와 영”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위에 부어지셨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는데 이는 메시아의 사역과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나타낸다(요 1:32-34). 실제로 그는 그 천상의 선물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음 받음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불렸다(히 1:9; 참조, 시 45:7).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졌다.

우리 구세주는 하나님이기에도 더 나아진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눅 2:52). 따라서 그분은 그의 중보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은사들과 은혜를 공급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요 3:34)는 말씀을 읽는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한량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 성령은 그의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사 11:2-3)으로 강림하셨다. 이처럼 그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름도 받고 또한 동시에 자격도 갖추게 되었다. 비록 그는 태초부터 그 사역을 위해 정해져 있었고 그가 처녀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하늘로부터의 위대한 인치심이

나타나서야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공식적으로 구별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널리 선포한다.

**2)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의 사명을 표현한 용어들은 50년마다 선포되던 희년과 관련되어 있다.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희년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처분하고 자신과 가족을 채권자의 노예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나팔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기업을 다시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레 25:10, 41). 복음은 그 나팔이며,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한다”(사 61:1). 우리 주님의 직분은 이 나팔을 불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은혜의 해가 찾아왔다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원수와 압제자들에게 ‘보복’을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다(사 61:2). 이 기쁜 소식은 자신이 죄와 사탄에 속박된 사실을 느끼며 죄의 즐거움을 위해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책과 비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공허한 소음처럼 느껴질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나팔 소리는 자신들의 부패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모욕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특히 ‘온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겸손하여진 자들에게만이 자유의 구원 선포가 가장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이다.

**(2)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시온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눅 2:25)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였다. 누구든지 “무거운 마음”으로 낙심하여 있고 “티끌과 재”(욥 30:19; 42:6) 가운데 슬퍼하고 있다면 그는 “그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기름을 붓고 대축제를 위해 가장 밝은 의의 옷인 찬송의 옷을 입도록 그 옷을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가장 비천한 종과 궁핍의 자리에서 부요와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며 믿는 영혼에 불어 넣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으려면 우리 역시 먼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을 덧붙이신다.

**2) 주께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목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

**(1) 사람의 유익:** 우리는 한 때 고귀한 포도나무로 심겨졌지만 이상한 포도나무의 타락한 식물이 되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대신에 소돔과 고모라의 썩은 열매만 맺는다(렘 2:21; 신 32:3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사 61:3). 가시 대신에 전나무가 올라오고, 찔레 대신에 상록수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사 55:13).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손으로 우리를 나무로 심으시고 물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그의 사명의 목표였고, 변함없는 그의 사역의 효과다. 오직 오순절 날에 회개한 회심자들만을 살펴보자. 우리는 그 회심자들 안에서 선포된 복음에 의해 만들어진 의로운 표본을 본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권능으로 임하며 똑같은 축복을 가져온다. 그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정원으로 옮겨진 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영생을 거둔다(롬 6:22).

(2)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지니셨던 가장 위대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만일 그의 마음속에 이보다 더 우월하거나 심지어 이것에 필적할 만한 다른 목표가 있었다면 그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를 보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가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어보라.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영원한 구원의 선포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자비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주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상한 심령을 고치신 것을 보라. 그들이 땅에서 기뻐하고 하늘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보라! 우리는 환호의 호산나를 부르며 기쁨으로 박수를 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자체로 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수많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1) **죄책을 느끼는 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멸망 상태와 불능의 상태를 느끼지 못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소망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온유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과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기만에 빠진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 여기서 ‘의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받고자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위로를 위해:** 천국 및 자기 영혼을 “헛된 것”(참조, 사 29:21)을 위해 팔아버렸다고 느끼는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지”(참조, 사 49:24)를 물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선포된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당장 당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잃었던 천국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지불할 것이 없고 단지 거저 받으면 된다! 당신은 당신의 원수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상하게 하셔서 당신 발 아래 있게 하실 것이다. 단지 이 소식을 당신 마음속에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토록 복을 베푸시며 만족해 하실 것이다.

~~~~~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눅 24:44).

9.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출처: *Collected Sermons of James Durham: Christ Crucified: The Marrow of the Gospel in 72 Sermons on Isaiah 53*, Vol. 2, ed. Coldwell (Dallas, TX: Grand Rapids, MI: Naphtali Pres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7), 83-87; used by permission.

저자: 제임스 더럼 (James Durham, 1622-1658): 영향력 있는 스코틀랜드 언약도, 장로교 목사,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고 사망.

역자: 아브라함 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사 53:1)

여기서 굳이 이사야 53장 전체를 펼쳐 보이거나, 이사야 선지지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이사야서의 이 글귀를 읽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서 했던 질문도 이런 것이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행 8:34).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대답해준 이가 빌립이다. 빌립은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품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두 가지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가 만약 이사야서의 이 글과 사복음서에 쓰인 글을 비교해 본다면, 그 글이 너무나 완벽하게, 또한 종종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사복음서와 비교해 본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주석가로서 이 글을 더욱 풍성하게 풀어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구절은 흔하게 등장하지 않으며, 이 글처럼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구절은 더욱 그러하다. 또한 사복음서 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인용한 구약성서의 구절들은 거의 없거나, 적어도 많지는 않다.

이제 우리가 이 장의 말씀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안에 복음의 총체와 본질이 담겨 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묘사와 표현, 그리고 (2) 구속언약의 개막과 전개,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복음의 총체가 완성되는데,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하므로 바로 여기에 복음의 총체가 담겨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다. (1) 인격과 본성 면에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분이시며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2) 그가 감당하신 모든 사역적인 면에서, 제사장으로서 공의를 충족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시며, 또한 왕으로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신다. (3) 그의 낮아지심 면에서, 그 수난의 원인과 결과, 내용, 그리고 이 모든 수난의 발생과 본질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있다. (4) 그의 높아지심 면에서, 그의 낮아지심과 모든 수난을 당한 뒤에 받으실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둘째, 여기에 구속언약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고 있다. (1)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성부) 하나님

과 중보자시다. (2) 그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후손과 그분이 친히 담당할 그들의 모든 죄악에 관한 것이다. (3) 양측에 맡겨진 각자의 역할에 있어 아들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아버지는 이를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 만족하심의 효력이 전가되어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적용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런 전가와 적용이 발행하는 조건 또는 방식은 “그분의 지식”(사53:11)에 따른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복음의 실체와 정수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이 성경 구절과 그 안에 감춰진 내용들의 탁월함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미리 말한 내용들이 이 장(章) 전체에 얽여있음을 감안할 때, 이 장을 까다롭게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절은 간략한 서문으로써 우리를 다음 내용으로 이끈다. 앞 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선지자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애석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의 말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었으리라. “아아! 우리가 전하는 이처럼 좋은 소식을 아무도 받지 않다니, 사람들이 이렇게도 무심하다니,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한 악이며 완고함이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란 말은 복음 전파와 심지어 그 복음을 효력있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어떤 의식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이 복음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적은가?

이 절의 앞 부분, 즉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에 주목하자. 이 구절과 관련된 교리를 다루기에 앞서 간단하게 네다섯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자.

1) 우선, ‘그 전한 것’을 그 범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구속언약, 그리고 은혜에 관한 것이다. 이 구절은 본래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리려고 한 것”이란 뜻이다. 이 단어는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 ‘소식’(tidings)으로, 예레미야 51장 46절에서 ‘소문’(rumor)으로 바뀐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고난당하는 한 중보자에 관한 소식과 소문이다. 여기에서 ‘들은 것’(hearing)이라고 말한 것에는 선지자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느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수동적으로 들었다. 그런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말했다.

2) 선지자가 이것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했거나, 또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이 전한 것은 이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며, 그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고, 또한 이후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이다.

3) 이사야가 이것을 전하면서 단지 당대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후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보자. 이사야가 이 구절로 오래 전에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이유(요 12:38; 롬 10:16)가 바로 이 한 구절에 제시되어 있다.

4) 이사야가 복음의 소식과 전파에 대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역사적 믿음의 결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요 12:37)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 성경의 예언적 구절이 덧붙여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요 12:38).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선지자가 불평하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8절과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사역에 열매 없음에 대한 불평이며, 동시에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열매가 없음에 대한 불평으로서 복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지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믿고 구원을 얻음에 대한 유감과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몇 단어가 안 되지만, 그 안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요약하자면, (1) 설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이자,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일이며, 그분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2) (암시적으로) 듣는 자들의 중요한 의무는 그 전한 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 안에 머무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3)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대부분 범하게 되는 중한 죄이면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죄이다. “누가 믿었느냐?”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이 전하는 것을 믿는 자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4) 정직한 복음 사역자가 갖게 되는 주된 불평과 부담, 그리고 안타까움은 이것이다. 즉,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아무도 받지 않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믿지도,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해 사역자들이 느끼는 주된 도전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불만의 근거는 이것이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을 전하든, 그리스도는 환영 받지 못하고, 그의 나라는 변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범위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하자면, 거기에서 대역섯 가지의 교리를 추론할 수 있다.

교리 1: 첫 번째로 중요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며,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소식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세상에 없다. 이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명성 높은 소식으로 모든 소식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 전달할 만큼 고귀한 것이다! 한 천사가 전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대체 이 소식이 무엇이기에 ‘보라’로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

다는 소식이며 그는 구원자라는 좋은 소식이다. 오로지 우리가 주장하려는 바는, (1)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음 내용을 말하는 몇 마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며 탁월하게 준비된 분이라는 점이다. (2) 또한 우리가 그가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분으로서 가져오시는 탁월한 효과, 즉 공의를 충족시키시며,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승리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등의 결과에 주목한다면, 이보다 더 뛰어난 일이나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3) 이 전한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이 소식이 그의 가슴에서 기원된 점(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에 주목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전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선지자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분은 불평의 대상이 된다. (4) 또한 우리가 이 소식의 신비로움에 주목한다면 천사들이 결코 그것을 스스로 구상하거나, 이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크고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임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일찍이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일을 보게 되고,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한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적용 1: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적용은 우리가 마음을 끌어 모아 복음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뭔가 참신한 것을 듣고자 귀가 근질근질하고, 자신은 이 소식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복음)에 담겨 있는 유익이 세상 어느 뉴스에 들어있던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소식을 보내셨을 때는 그 소식은 분명히 크고 위대한 소식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그 소식은 참으로 위대하다.

적용 2: 그러므로 중요하고 명백한 복음의 진리를 혐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아덴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 듣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행 17:21). 그러나 그것에 관하여 자주 듣고 흔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적용 3: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상고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본질을 깨달으라. 또한 복음적 규례를 더 많이 성찰함으로써 이런 좋은 소식이 더 자주 새롭고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하라.

교리 2: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및 그와 관련된 것들(구원자에 대한 기쁘고 좋은 소식과 그런 소식을 전하는 일)이 목회자에게 가장 합당한 사역이며,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 주목하라. 목회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는 전파되는 모든 설교에서 원초적인 주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바이며, 실제로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러하였고, 모든 목회자들도 그래야만 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위격, 본성, 직분 면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 그의 감당하시는 직분 면에서 그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알리는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왕으로서 사람들의 욕망을 진정시키고 타락을 가라앉히셨다. 이처럼 그를 알고 알림에 있어 설교자와 청중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이며, 모든 설교는 이 목표를 향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단호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바울은 “다른 일에는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것 한 가지에만 전념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시민으로서 일반적으로 할 일들에 관여하기를 금할 뿐 아니라, 자신의 학식과 언변, 인간적 지혜를 제쳐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알고자 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네 가지 면에서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1) 모든 설교는 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행 10:43). 아울러 네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서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그에 대한 수많은 설교인 셈이다. 그와 관련이 없는 설교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며,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다. (2) 그는 포기할 수 없는 설교의 토대요 기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토대가 없는 건물로서, 일종의 공중누각인 셈이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0-11). 이는 곧 모든 설교는 이 기초석에 어울리고 부합하도록 다듬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3) 그리스도는 설교의 가장 큰 목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청중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를 의식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감정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후 4:5). 이는 곧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제로 삼아 설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설교의 목적으로 설정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높이거나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설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4) 그는 설교와 관련하여 설교의 능력과 생명으로 존재하신다. 그가 빠진 설교는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어떠한 영혼도 그런 설교에 붙잡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들은 차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24).

10.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출처: 1741년 9월 11일 금요일에 전한 설교

저자: 조지 헛필드(1714-1770): 영국의 글로체스터 출생. 대각성 시대의 영국 국교회 목사이자 복음 전도자로 감리교도 세웠음.

역자: 김현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6).

나는 ‘주’(主,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 ‘주 우리의 공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숙고하겠다. 혹시 아리안주의자나 소시니안주의자가 호기심으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묻거든”(참조, 행 17:18),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해주겠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본문에서 ‘주’라고 명기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5, 6).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두 동의한다. 본문의 ‘주’는 바로 그분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다른 본문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주’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성경 여백에 ‘주’라는 단어가 원래 ‘여호와’라고 적혀있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칭호다. 그렇다면 그대 아리안주의자여, 와서 하나님의 아들에 입 맞추며 그분 앞에 절하라. 아버지께 하듯 아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라. 새벽 별인 천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배우고 그분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처녀 마리아를 숭배하는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대 소시니안주의자들이여. 그대들은 당신의 교리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는 단지 육신의 힘으로 산 자일 뿐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나는 그런 괴물 같은 자들은 이제 더 없기를 바란다. 아무튼, 이런 것을 숙고한다면 그런 끔찍한 논리를 떠올리기만 해도 부끄러워질 것이다. ‘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한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여호와라고 명시된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가 경건하게 표현한 것처럼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롬 9:5)이다.

다음으로 어떻게 주께서 사람의 의가 되시는지 숙고해보겠다.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전가를 통해서 된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영원히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겸손하심은 무한할 정도로 깊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복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죄짓지 않고 순종하면 그에게 불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조건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

으셨다. 또한 사람으로 동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의 책임자가 되기를 기뻐하셨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람이 계속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그가 살았을 것으로 분명히 추론해볼 수 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비참한 사건의 경위를 알려준다. 즉, 우리의 첫 부모가 이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고, 그로 인해 장래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들 자신의 것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게 된 내용이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들은 늘 그랬듯이 행위 언약 아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한 뒤로 힘을 잃었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일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야 했고, 그것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해야 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이미 죄를 지으며 파괴한 결과로 무한히 침해받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놀라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라,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빌 2:6) 사람의 본성까지 입으셨다. 사람의 본성으로 주님은 순종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도덕법 전체를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 죽으셨고, 우리, 즉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충족시키셨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순종하시고 고난을 겪으셨다. 그리고 한 위격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의가 전가되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해 넘치고 완전한 충분한 의를 다 이루셨다.

여기서 우리는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할 때 우리는 후자, 곧 그의 죽음만 언급한다. 반면, 전자는 그의 삶과 적극적인 순종인데,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셨고,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순종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순종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전가될 온전한 의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본문에서 이해시키려고 했던 말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33장 16절에서 “이 성(교회 자체)은 (이 의가 교회에 전가된 것이므로)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구절이다.

이제 당신의 양심을 조금 더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 몇몇은 이 교리로 인해 실족하고 이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도 여러분 중 많은 이는 이 교리가 귀하며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건전한 내용으로 생각할 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기대한다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주가 ‘우리’의 의입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의 의이신 주님”이라고 대답한다. 머리로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저주만 키울 뿐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자, 당신은 도마처럼 “나의 주

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과연 당신의 외적인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되시는가? 본문의 ‘의’라는 말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겨난 거룩한 마음까지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셨다. 하나님은 이 둘을 분리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따로 떼어놓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거룩하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이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러운 옷”(사 64:6)과 같은 자신의 의(아니면 선지자가 멋지게 표현한 당신의 “의”)를 혐오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완전한 충족성을 깨닫고 감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다. 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된다면! 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겪은 후, 당신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믿음의 팔로 복되신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안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아 2:16).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두려워하지 말라. 환호하고 환호하라, 행복한 당신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 주 그리스도는 당신의 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당신을 정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을 위해 간구하신다(롬 8:33-34).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롬 5:1), 이제 오래지 않아 예수님과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몸과 영혼 모두 영광을 누리며 말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롬 8:1). “바울이나 아볼로나…생명이나 사망이나…다 너희의 것이요”(고전 3:22).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 나의 형제여,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커진다! 오,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라! 주님이 당신의 의라면 주님의 의가 항상 당신의 입에 머물게 하라. 오, 당신이 눕고 일어날 때도, 나가고 들어올 때도 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말하고, 그 의를 권하라!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을 늘 생각하라! 당신이 믿는 분을 온 세상에 알리라! 당신의 열매를 통해 주님이 당신의 의이시며, 당신은 천국에서 주님을 뵈기를 고대하는 사람인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오, 당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피로 당신을 씻기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힘쓰라! 당신 때문에 주님의 의가 모독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 친구들의 집에서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게 하라. 오히려 날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8). 오,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 사랑에 강권되어 순종하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는 법이다. 항상 이렇게 자문하라. “나에게 그의 의를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감사를 표할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질문이 늘 당신의 입에 머물게 하라. 오, 항상 이렇게 말하라.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저

를 택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저의 의가 되셨습니까? 왜 주님이 저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저야말로 수시로 주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아닙니까?”

오, 친구여,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낀다! 그러므로 당신을 축하하는 말은 잠시 멈추고 이제는 불쌍한 죄인들이 그에게 나아가 생명이 되는 그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초청하고 싶다.

슬프다! 나의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 같구나! 수많은 귀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내 앞에 있는가! 얼마나 신속히 모든 사람이 영원으로 들어가는가! 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바라신다. 그러나 “나의 의이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얼마나 적은가?

오, 죄인들이여, 생각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심판 날에 설 수 있겠는가? 아니다. 혼인 예복을 갖춘 사람만이 설 수 있다. 오, 그리스도 없는 죄인들이여,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는가! 내 영혼의 바람은 커질 뿐이다! 오,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다! 주님은 당신의 의가 되실 수 있다!

죽음이 별거벗은 당신을 찾아낸다면 과연 당신은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의 존전에서 당신이 숨을 곳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서보라고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의 의라는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당신의 벗은 몸을 가릴 수 없다. 아담은 나뭇잎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 죽음을 생각해보라! 오, 심판을 생각해보라! 정말 잠시 잠깐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가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을 지으신 분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에게 저주를 선언하실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 예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구리 살과 강철 뼈로 구성되었는가? 설령 그럴지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울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을 견딜 수 있는가? 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진다! 거룩한 영혼들이 어느 때고 며칠이나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이 어둠 속에서 빛도 없이 걸게 될 때 얼마나 비통함을 느끼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고 그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얼마나 온종일 슬픔으로 그를 찾으며 애통해하는지 보라!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느낌을 잃어도 그렇게 무섭고 떨리거든, 하물며 영원히 그분 앞에서 추방당한다면 그 두려움이 어떠하겠는가?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전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아니,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고통의 장소로 가라고 정죄하실 것이다.

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몸서리쳐지는지! 나는 그리스도 없는 비참하고 벌벌 떠는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주님,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다른 천사나 천사장이 정죄의 판결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지만 모두 헛수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두려운 분인줄 알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하라. 당신이 “나의 의이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가만 있지 말라.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죄를 넉넉히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라. 주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의는 물론이고, 그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죄인인가? 나도 그렇다. 당신은 죄인의 괴수인가? 나도 그렇다. 당신은 타락한 죄인인가? 나도 그렇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풍성하고 거저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지라!) 나의 의이시다. 그러니 젊어 오라. (나도 한때 그랬지만) 그대는 하늘의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탕자처럼 방탕하며 방황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 돼지우리를 떠나라. 다시는 감각적인 쥐엄 열매로 양식을 삼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라! 지금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부르신다. 보라. 저 멀리 최고의 의복, 즉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옷을 보고 또 보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옷이 얼마나 멋있는지 헤아려 보라. 당신에게 그 옷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라. 이 옷이 없으면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 파멸한 자,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오라, 불쌍하고 죄많은 탕자들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나는 장남처럼 화내지 않겠다. 아니,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오, 하나님, 하늘 아래로 내려오소서!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소서, 오소서. 저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당신 앞에 있는 탕자들에게 복되신 성령으로 주님의 의를 적용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들의 벌거벗은 영혼에 주님의 최고의 옷을 입혀주소서!

~~~~~

예수께서 두 제자가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호되게 책망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골 3:16)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체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르지 못한 곳에는 그리스도가 알려질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입증되는 것이 하나 있다. 곧, 그분을 아는 것은 영감된 증거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아더 핑크

## 11. 공의로운 해(태양)이신 예수님

출처: From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ed. Alexander Balloch Grosart, Vol. 7 (Edinburgh; London; Dublin: James Nichol; James Nisbet and Co.; W. Robertson, 1864), 169-170.

저자: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1577-1635): 캠브리지에서 초기 청교도 목사이며 나중에는 런던의 그레이 인 교회를 섬겼다. 영국 서포크 토스토크 출생.

역자: 정영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하나님은 자연물을 통해 은혜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태양”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물리적인 피조물을 사용하여 영적인 면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탁월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창조주의 탁월함을 생각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과 힘을 갖고 편안함을 준다면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은 얼마나 탁월하겠는가! 그러므로 강이 바다로 인도하듯이 이 피조물들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주된 관찰은 예수는 공의로운 해라는 것이다. 본성상 그의 입술에 간사함이 없었듯이, 그는 늘 실제로 의로우시다. 그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시다(고전 1:30). 그는 태양에 비유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빛이 태양의 본체에 모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전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탁월함이 충만하게 그분 안에 머물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골 1:19).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완전함을 찾는 사람들은 태양 없이 빛을 찾는 것과 같다.

둘째,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공의로운 해도 하나다. 그러므로 두 머리 혹은 두 남편이 왜 필요하겠는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간통자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대리자이신 그의 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비록 천개의 세계가 있더라도 모든 피조 세계는 다른 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해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와 자비를 여기 아래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높이 올림을 받으셨다. 오직 하나의 태양이 생명을 주고 땅을 소생시키는 것과 같이 그는 모든 만물에 생명과 빛을 주신다.

넷째, 해가 여기 아래의 모든 것에 크게 작용하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다섯째, 해가 빛의 근원이고 세상의 눈이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인 빛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요 8:12).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한다(요 1:9). 그리고 스가랴는 그를 “위로부터 돋는 해”라고 부른다(눅 1:78).

여섯째, 태양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할지 인도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가도록 가르치시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신다. 어떤 의무를 행하고, 어떤 일을 피하고, 어떤 일을 짊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신다.

일곱째, 어둠은 두려움을 주지만 해는 즐거움을 준다(전 11:7),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평안을 주신다. 그는 그가 임하는 모든 장소에 평화를 주시고 그의 영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무지와 과실이 어둠으로 표현되듯이, 그와 반대로 기쁨과 영예와 지혜는 그것을 가져오는 빛으로 표현된다(에 8:6).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이며 후원자시다. 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겠는가?

여덟째, 해의 광선은 만물이 자라고, 때와 계절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리스도는 그의 힘으로 만물에 생기를 주신다. 그러므로 “살리는 영”이라 불린다(고전 15:45).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까지 우리는 무지와 불신앙의 옥에 갇힌 죽음과 어둠의 영이었다. 그러나 그가 빛으로 살리신다.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의 영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 그는 은혜의 성장을 위해 봄(spring)으로, 열정의 힘을 위해 여름(summer)으로 역사하신다.

아홉째, 해는 우리에게 내려움이 아닌 그 자체의 영향으로 이러한 효과들을 낸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성찬에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성찬 예식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멍청해질 수 있는가! 해는 본성적으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의의 태양은 비록 그가 한 조각의 빵에 몸으로 임하지 않더라도 그의 영의 영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생시키지 않겠는가?

열째, 해가 아낌없이 일하며 땅의 수증기를 끌어올려 가뭄에 소중한 비를 내리듯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는 거리낌 없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의 발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그 자체로는 올라갈 수 없는 하늘로 아낌없이 이끄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철 같이 딱딱한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는 자석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천한 세상을 찌꺼기와 배설물로 여기게 하신다.

열한째, 해가 모든 것에 비추지만 모든 것이 뜨거워지지 않듯이,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제시되고 그의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시지만, 모든 사람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깨달은 모두가 그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것도 아니다. 아니, 어떤 이는 더욱 굳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육체를 굳게 만드는 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열둘째, 마지막으로 해가 죽은 생명체에 생명을 넣고 생기를 불어 넣듯,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그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몸에 생기를 넣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특정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점에서 태양과 같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치지만 그리스도는 그러하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빛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있다. 그는 자비로우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참의 상태에 있다.

-----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에 관한 참된 교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전체의 교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 수반된 기적의 증거에 계시의 증거가 추가될 것이다. 나중에 주어진 계시의 권위는 이러한 기적들에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받아들인 영감의 진리와 그 가르침의 일치에 달려 있다. - 제임스 페티그루 보이스

## 12.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

출처: *From Morning and Evening: Daily Readings* (London: Passmore & Alabaster, 1896).

저자: 찰스 스펀전(1834-1892)

역자: 정영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하시니라”(눅 24:27).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가장 유익이 되는 여행을 했다. 그들과 동행하신 교사는 최고의 개인교사였다. 그 교사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에”(골 2:3) 가장 완벽한 해석을 해 주셨다. 주 예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 낮아지셨고, 두 사람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는 지금 단 한 사람의 교사가 되는 것도 거부하지 않으신다. 그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그 교사와 동행하기를 구하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교사는 그의 수업 책으로 최고의 책을 사용하셨다.** 새로운 진리를 밝힐 수 있지만, 그는 옛 것을 설명하기를 더 좋아하셨다. 그는 가장 유익한 가르침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의 전지하심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지혜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색이나 추리나 인간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지식으로 풍부해지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성경이라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파고, 이 하늘의 바다에서 진주를 모으는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하셨을 때, 그는 성경의 채석장에서 수고하셨다.

예수께서 예수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심으로, 축복된 그 둘은 가장 좋은 주제로 인도함을 받았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자르고 있는데, 이 보다 더 감탄할 만한 것이 있는가? 집 주인은 자신의 문을 열고, 그의 식탁에 손님을 안내하고, 자신의 진미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밭에 보물을 감추어 두었던 그는 보물을 찾는 자들을 친히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주님은 가장 달콤한 주제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주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보다 더 달콤한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교사이자 교훈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